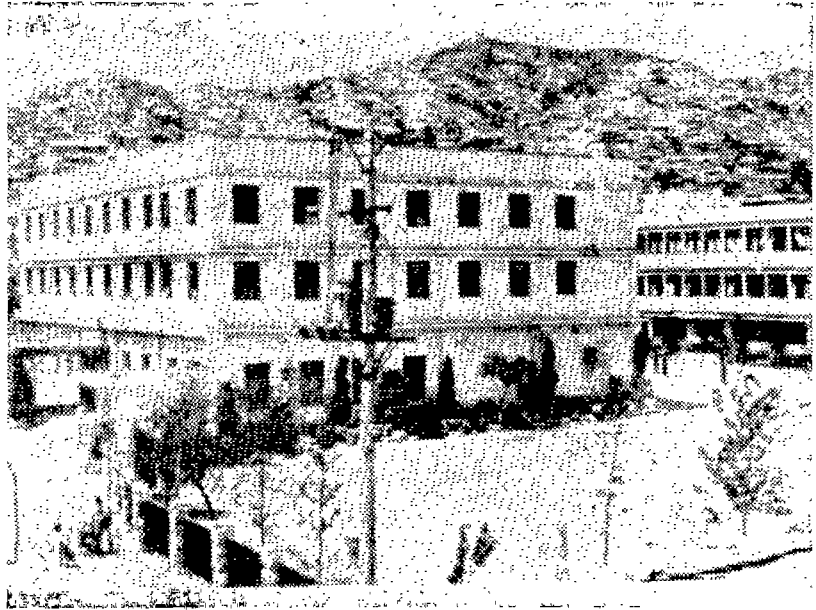


새로 개원된

## 서울간호전문학교 부속병원

이  
달  
의  
탐  
방



서울장안에 또하나의 종합병원이 새로 설립개원되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일이며 특히 간호학교 부속병원이라는 것은 간호계의 기쁨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엄청지절, 기자가 탐방한 곳은 지난 6월 30일 새로 개원된 서울간호전문학교 부속병원—

서대문구 문화촌에 자리잡고 있는 이 병원은 지역적으로, 그 옛날 호랑이가 나왔다는 인왕산이 드리워있고 지금은 그 기슭을 타고 뿔뿔히 집들로 들어서 있어 술한 주민의 보전을 담당하는데 안성맞춤인듯, 인근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해 왔다는 주민들의 환성이 높다.

서울간호전문학교가 부속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20여년 역사를 통해 계획해 왔던 숙원사업을 달성한 것이며 또한 보다 나은 간호계 인재를 길러 내는데 좋은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한다.

그동안 학교당국과 교직원 및 학생전원은 오랜 세월동안 일치단결하여 부속병원 개원의 꿈을 실현키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며 드디어 그 결실을 본 것이다.

대지 1,300평에 전경 500여평의 아담한 3층 건물이 학교를 뒤로하고 친근감 있는 규모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다.

이 병원은 설립공로자인 하두철 서울간호전문학교장을 원장으로 하고 의무원장겸 산부인과 과장에 설경성박사(전 세브란스병원부원장겸 산

부인(과과장)를 위시하여 8명의 전문의 그리고 인턴, 17명의 간호원과 수명의 간호보조원, 기타 직원등 총 50여명의 인력기반을 갖추고 있다.

주요 진료과목으로는 산부인과, 내과, 외과, 소아과와 그밖에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등으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2층이 주로 병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 수용능력은 현재 50Bed를 갖추고 있을 뿐이지만 곧 100Bed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며 현재 입원환자수는 30여Bed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산부인과 환자라 한다. 이들은 새로 개원된 병원의 청초한 분위기속에서 만족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우리병원은 우리손으로”라는 「슬로진」을 내걸고 총학생, 의료진, 관리진의 삼위일체가 되어 최대의 노력과 최대의 봉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이 병원의 특성은, 교육병원으로서 나라와 가정의 기둥이 되는 산원의 시설을 특별히 완비했다는 것, 또한 학생교육과정 이수를 겸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역보건 사업에 적극성을 띠

었다는 점.

그리고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어린이와 어머니 건강증진에 주력하겠다는 점이다.

현재 모자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장엔 서울간호전문학교에 교직을 둔 변경자씨(간호원)가 맡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입원료는 주민들의 경제수준에 맞게 최선의 편의로 열가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간호원의 대우는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다.

새로운 의료인의 광장이 마련된 이곳 간호과의 소식을 알아본다.

간호과장에 연명속씨.

자그마한 키에 예쁘고 밝은 인상을 주는 분이 다. 연간호과장은 60년에 충북 청주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의대 부속성모병원에서 방용자수녀님을 과장으로 모시고 수년간 근무해오다 그후 충북 괴산군보건소등지에서 지역사회의 보건간호에 다년간 봉사해온 분으로 임상, 보건의 경력을 두루 갖춘 새로운 파위의 물결인 것이다.

「그동안 4남매를 두다보니 하고싶은 일을 다 못해 왔지요. 부족한 것은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4남매의 엄마이기엔 너무 젊은 분위기를 풍겨준다.

시동이 걸린 차체의 기능처럼 간호원들의 긴장어린 모습들은 개원초의 새환자 흡수에 최대의 성의와 봉사를 말해주고 있는듯...

<林>

